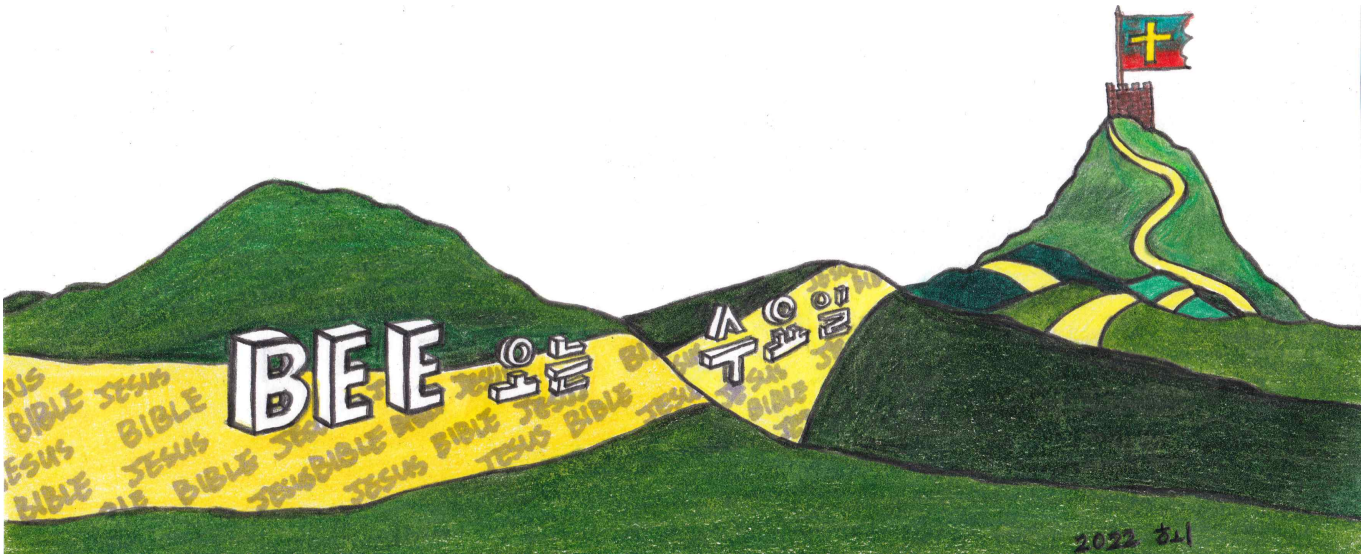


스물네번째 이야기

애처로움을 넘어

[선교사 선교현장⑨ - 네팔]

왠지 네팔을 생각하면 애처로움부터 쏟아진다. 인종 전시장과 같은 카타르에서 네팔인들은 도로 청소나 막노동, 식당 종업원 같은 허드렛일을 많이 한다. 다인종이 참여하는 BEE 졸업식에 인도와 네팔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여신도들이 사리를 입는다. 인도 여인의 사리는 비단 같은 좋은 재료에 멋진 수를 놓아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네팔 여인의 사리는 한껏 차려입었어도 무늬를 찍은 화학 섬유로 되어 있어 후줄근하게 보인다. 그리고 네팔 학생들은 늘 주눅이 들어 있다. 적어도 나나 내 아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꼭 여러 자식 중 가장 형편이 어려운 자식을 보는 느낌이다.

산에 걸친 구름들

목회자 세미나 중 율동

그래서 네팔에 갈 때면(사실 어디를 가든) 더욱 무게가 허용하는 한 선물을 가방이 터지도록 담는다. 22시간을 델리에서 기다려야 하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다 망가진데다 아무거나 잘 먹는 내 입에조차 맞지 않는 기내식을 주는 인도 항공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23킬로짜리 가방 둘을 가지고 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다양한 남녀 화장품(난 잘 모르는데 자기 전에 바르는 것도 있고, 세트로 된 것은 뭘 먼저 바르고 다른 걸 나중에 바르라고 했다)과 기증받은 날짜 지난 립스틱, 역시 공장에서 기증받은 생리대 100박스, 선물용 수건과 부채, 빗(숙박업소에서 모은), 마스크 200장, 손소독제, 한국 라면, 입던 옷, 다양한 크기의 백과 가방 등등. 개인적으로 구입한 선물들은 물론 기도 테이블에서 마련해준 선물들, 그리고 그동안 받아 두었던 다양한 물건들을 가방이 터지도록, 허락되는 무게보다 약간 더 담고 기내 가방에도 한도껏 넣는다. 30년 전 즈음, 당시 지금의 내 나이 정도 되었던 한 선교사가 그랬다. 자기는 고아 아버지 같다고… 네팔을 갈 때면 나도 고아 아버지가 된다.

WLICC 열악한 환경

모험 가득한 네팔 여정

코로나19로 몇 년만의 방문인지라 도착해서 출발까지 9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카드가 목사는 빽빽하게 스케줄을 잡았다. 자신이 개척한 26개 교회 목회자 세미나(2일), 시온 국제학교 교사 모임 설교, 전교생 조회 훈시, 주일 설교, WLICC 논술(3일), 선교사와 인도자 수련회(2일) 등을 도보

부터 툭툭이, 오토바이, 시외버스, 사륜구동 짚까지 다양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 몇 시간을, 먼 곳은 하루 종일 이동해서 일정을 소화했다. 무거웠지만 가지고 간 물품을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BEE Korea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전했다. 누구라도 그렇지만 특히 가난한 그들은 늘 무어라도 받으면 감사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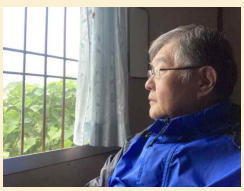
선물 나누기

산을 오르며

그런 애처로움에도 불구하고 난 네팔이 자랑스럽다. 코로나19전에는 한때 가장 모범적으로 BEE 사역이 정착한 곳이기도 했다. 한 해에 2,000명 넘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훈련하고 100명이 넘는 메가 졸업식(그들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며 이름 붙였다)을 거행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 형태를 네팔에서 시작해서 시험해 보고 다른 곳에 접목했다. 간략본 학습서의 사용, 현지인 선교사 제도, 종합시험, WLICC 등 지금 BEE Korea의 사역 형태는 네팔에서 태동되고 무르익어 전 세계의 BEE Korea 사역지로 보급되었다. 혹은 애처로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어쩌면 그들에게 나의 이 애처로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늘 그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며 격려한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카트만두에 홀로 남아 잠시의 여유를 즐긴다. 이제 그 바쁜 스케줄에서 해방되었고 매일 먹던 카레를 당분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미소가 나온다. 그런데 이내 애처로움과 그리움이 미소를 덮는다.

[글쓴이 조문상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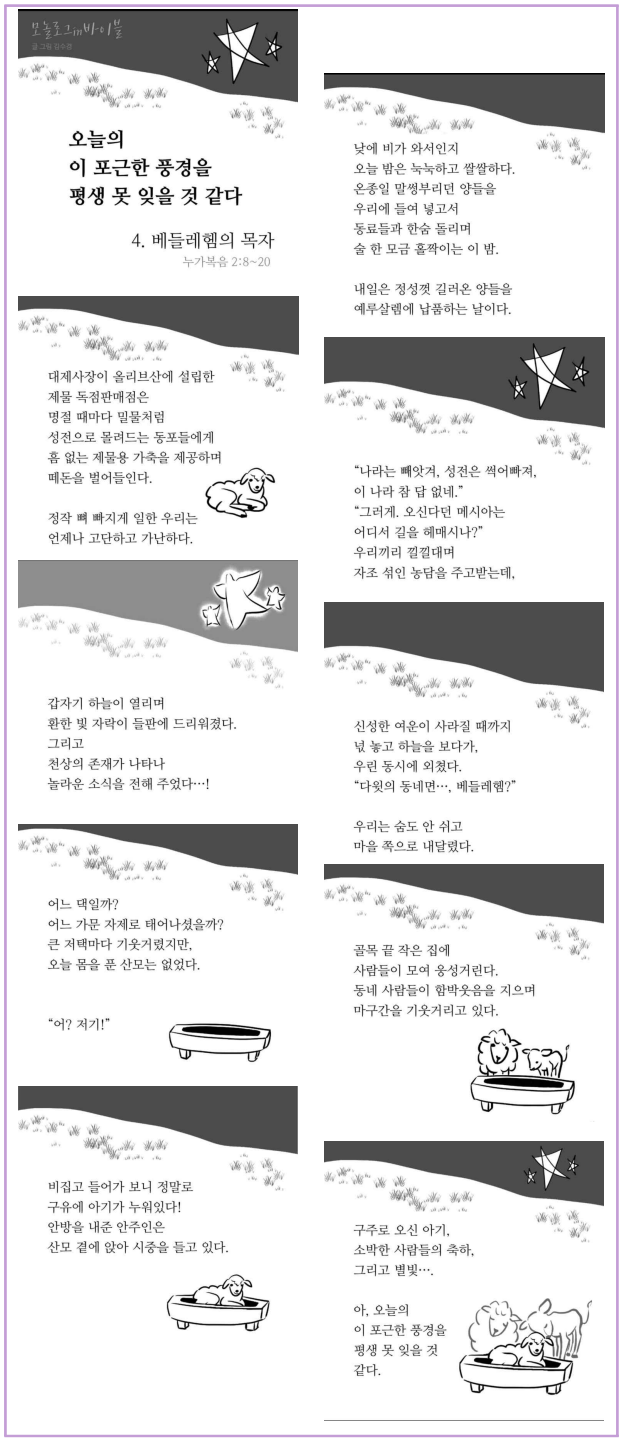


아내 김정년 선교사와 함께 1999년부터 전임 선교사로, 2004년부터는 사무총장으로 BEE Korea를 섬기고 있다. 네팔 사역은 1999년 초 BEE Korea의 두 사역자와 함께 개척해 2004년까지 네팔 사역의 기초를 놓은 후 박은형 선교사가 이어받았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monotoon [모놀로그 인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g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푯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10월 15일(토), 2022년도 하반기 FTS 입학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헌신하는 예비 인도자 14명을 축복하며 은혜가 가득한 FTS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 10월 29일(토) OBA 수련회가 청주에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수련회로 모이는 OBA 가족을 축복하며, 예배와 말씀과 귀한 나눔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4. 찬양과 악기로 토요기도모임 예배를 함께 섬길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도 테이블 식구, 순식구 중에서 BEE를 하신 분, BEE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토요기도 모임 참석자 중(예정 포함)에서 싱어, 인도자를 모집합니다.